

내면의 호흡을 통한 풍경의 체험

글. 손영실 시립미술관 큐레이터, 예술 매체이론 박사

<풍경과 기억>전은 풍경의 체험을 통해 드러나는 풍경에 대한 '사적인 시선'을 보여주는 작업들로, <진경산수(眞景山水)>와 <사적산수(私的山水)> 시리즈를 포괄하고 있다.

<진경산수(眞景山水)>시리즈는 진경산수화에 나타난 실제 장소를 찾아가 촬영한 것으로, 원래 '진경산수화'는 실제의 풍경을 있는 그대로 완벽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산수(山水)의 정취와 풍경에 대한 체험을 진솔하게 그려내어 실제의 완벽한 재현이 아닌 체험한 풍경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주요 관심사는 현실 속의 대상을 어떻게 보여주는가에 대한 것으로, 작가는 진경산수화가들이 그랬듯이, 현실 속의 풍경을 자신이 체험한 풍경으로 드러낸다.

<사적산수(私的山水)> 시리즈는 작가 개인의 기억 속에 강하게 각인된 특정장소를 작가가 자신의 의식을 담은 기억 속의 풍경으로 표출함과 동시에 개별화된 주체로서의 관람자들이 제시된 풍경에 스스로의 시선을 투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작가가 사진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풍경은 어떤 특정 장소의 풍경으로 천착되기 보다는 어디서 본 듯한 그러나 정확히 그곳이 어딘지를 파악할 수 없는 층위에만 머물러 있다.

작가의 작업 방식은 흑백필름을 사용하여 촬영하고 스캔한 사진을 디지털 방식을 통해 크로핑(cropping)과 흐린 효과를 준 후 한지에 잉크젯 프린트하고 조색 처리하는 식으로 마무리되는데, 이러한 조색은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프레임은 1:2.5 비율의 장방형으로 시선의 자연스런 흐름을 유도한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마치 장외영역(hors-champ)처럼 촬영 당시 그곳에 분명히 존재했으나 특정한 장면만이 사진 속에 담김으로 인해 시간의 지속이 아닌 단편이 기록되어 초래된 시공간의 단절 속에서 사진의 표면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그 내부로 침투해가는 시선의 흐름이다. 결국 경계가 뚜렷하지 않음으로 인해 경계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공간적 지각의 문제는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 비논리적인 영역, 감정의 영역이 내포될 여지를 많이 남기고 유동성을 위한 내적인 공간을 부여하게 된다.

'풍경의 체험'이란 체험의 주체인 나와 객체로서의 풍경 사이의 관계를 상정하는 행위이다.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말에는 감각(sensation)과 지각(perception)이 있는데, 나의 참된 경험은 지각의 경험으로 지각은 감각적인 성질이 단순하게 주관 속에 표출된 것이 아니다. 메를로 폰티(Merleau-Ponty, 1908-1961)는 살아있는 주체, 즉 육체가 지각의 중심부이며 "감각은 느껴지지 않는다... 감각하는 것은 성질에 하나의 생명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며... 감각한다는 것은 세계와의 생명적 교류이고 이러한 교류에 따라서 세계는 우리 생활의 친숙한 관계로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지각의 현상학(La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중에서.) 라고 언급했다. 여기서 주체는 개체의 주체이기보다 일반적인 주체로 나의 지각은 문화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로 내가 보는 것은 나로 하여금 어떤 것을 기억하게 한 것이며 나는 기억하고 추리하는 과정을 거쳐 대상을 사유하게 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사진은 풍경의 체험을 표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매체라 할 수 있다.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데는 과학적 방법인 분석과 형이상학적 방법인 직관이 있는데 분석은 사물의 밖에서 보는 것이고 직관은 사물의 안에 들어가서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다. 작가는 흐릿한 이미지를 통해 현실의 단편들을 마티에르의 물성이 느껴지는 감각적인 표면으로 구성하여 시각적 대상으로뿐만 아니라 촉각적 물질성을 체득하게 하여 내면으로 침잠하게 한다.

작가는 우연히 접하게 된 옛 그림들 속에서 선조들의 기억 속에 각인된 풍경을 그들의 기억이 만들어 낸 흔적을 따라가며 자신의 기억 속 풍경으로 새로이 사유해낸다. 그리고 작가 자신의 오래된 기억 속의 풍경을 거슬러 또 다른 기억을 만들어 간다. 현실성(reality), 그 자체는 분명히 포스트 모던한 매체 위주의 세계에서 단편화 되어졌고 더 이상은 하나의 관점에 근거한 판단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가운데 이미지를 다루는 실제 상황은 새로운 방식 혹은 새로운 시각적 패러다임으로 향하고 있다.

풍경에 대한 시선을 만들어가는 작가는 한국적 풍경에서 이제 자아를 찾아 떠나는 여행으로 옮겨간다. 처음부터 한국적 풍경에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않았던 작가이기에 개인의 기억에 녹아있는 기억의 파편들을 풍경으로 재조립해내는 일은 필연적인 과정일 것이다.

이번 작업은 작가의 개인적 기억 속에 자리 잡은 풍경과 선조들의 풍경 체험이 교차되는 가운데 여기서 풍경의 체험은 우리의 삶의 풍경, 나와 관계한 기억의 풍경을 느끼고자 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